연말 한국영화 3강전… 강철비 vs 신과함께 vs 1987

하정우·정우성·김윤석 등 슈퍼스타들 총출동… 어느해 겨울보다 '후끈'

영화 '강철비' 한장면.

맹추위가 시작된 겨울, 연말 극장가는 '한국영화 빅3'로 후끈하다.

남북관계를 다룬 첩보물로 시작해 웹툰이 원작인 판타지와 암울했던 시대로 돌아간 다큐같은 영화가 개봉해 관객몰이에 나선다.

특히 이 영화들은 슈퍼스타들이 총출동해 어느해 겨울보다 뜨거운 열기를 전한다.

하정우·정우성·김윤석·곽도원·차태현·이정재·주지훈·이희준·유해진·김태리가 출연 '스크린 삼국지'라고 할 만큼 치열하다.

강철비 vs 신과함께 vs 1987. 장르와 내용이 다르지만 과연 어떤 영화가 웃을지 주목되고 있다.

◇첩보액션 '강철비'

14일 개봉한 '강철비'(감독 양우석)는 북한 최정예 요원 엄철우(정우성)과 남한 외교안보수석 곽철우(곽도원)의 이야기를 그린 첩보액션스릴러물이다. 남한 정권 교체기,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쿠데타가 발생하자 엄철우는 치명상을 입은 '북한 1호'를 데리고 비밀리에 남한으로 내려온다.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에 남한에는 계엄령이 선포된다.

제2의 한국전쟁 발발 직전, 곽철우는 엄철우가 북한 VIP를 보호하며 남한에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접촉에 나선다.

2013년 데뷔작 '변호인'을 1000만 영화로 만든 양우석 감독의 신작이다.

양 감독의 영화 세계가 확장됐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는 이 영화가 단순한 첩보액션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변호인'의 성공을 함께했던 곽도원이 다시 한번 양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북한군이 된 정우성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모으고, 김갑수·김의성·조우진·이경영·정원중·김명곤 등 최고 연기력을 가진 조연진이 영화의 사실감을 극대화한다. 배우들의 연기는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7개 지옥 판타지 '신과함께'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이 한 아이를 구하고 숨을 거둔다.

자신의 죽음을 멍하게 바라보던 그의 영혼은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마주한다. 바로 저승차사. 소방관은 이제 이 저승차사들과 함께 저승에서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 어떤 재판이냐고? 바로 인생 재판이다.

영화 '신과함께' 한장면.

영화 '신과 함께'(감독 김용화)는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2010년부터 2년 간 포털 사이트에 연재한 동명 만화가 원작이다.

이 작품은 웹툰 전성시대를 연 것은 물론 오락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춰 웹툰계 걸작으로 꼽힌다.

'미녀는 괴로워'(2006) '국가대표'(2009)를 만들며 흥행 감독 반열에 오른 김용화 감독이 이 독특한 소재 만화를 영화화했다.

총 제작비만 400억원, 한국영화로는 최대 규모다. 원작의 방대한 분량은 물론 수익성을 고려해 1, 2편으로 나눠 만들어졌다.

한 번에 촬영한 두 편의 영화가 다른 시기에 개봉하는 건 '신과 함께'가 처음이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 작품답게 하정우·차태현·주지훈·김향기·마동석·김동욱·도경수·오달수·임원희·장광·이정재·김수안·이준혁·김해숙·이경영·김하늘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저승세계를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한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내 삶과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본다'는 식의 인간적인 스토리의 조합을 관객이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거리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던 서울대 학생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을 받아 사망한다.

이른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이 일은 1987년 체제를 탄생시킨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외연 확장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다.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통해 되돌아본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려는 검사가 있었고,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인이 있었고,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시민이 있었다.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2013)의 장준환 감독이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성취 사이의 시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주목된다.

하정우·김윤석·유해진·김태리·박희순·이희준·여진구·설경구·강동원, 이 작품이 가진 의미에 동참한 배우들이다.

/뉴시스

아이스하키, 세계 2위 러시아와 내년 2월 평가전

백지선(50·짐 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 러시아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지난 14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VTB 아이스 팰리스 프레스룸에서 러시아아이스하키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체결식에는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블라디슬라브 트레티악 러시아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로만 로텐버그 러시아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 겸 러시아아대륙간아이스하키리그(KHL)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지난 3월 강릉에서 러시아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채널원컵에 출전하는 등 러시아아이스하키협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평창올

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대표팀의 대회 준비에 적극 협조하겠다. MOU 체결이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레티악 회장은 "러시아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훈련 캠프 준비에 한국 측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MOU 체결이 극동 아이스하키 발전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러시아아이스하키협회는 코칭스태프 세미나, 유소년팀 교류전, 동아시아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 한국 대표팀과 러시아 대표팀(혹은 KHL 소속팀)의 친선 경기를 한국과 러시아에서 한 차례씩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양국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내년 2월 10일 안양실내빙상장에서 친선 경기를 치른다.

한국과 러시아 모두 평창올림픽 본선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이다.

러시아는 2017년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랭킹 2위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톱스타로 활약한 파벨 댓축, 일리야 코발축, 슬라바 보이노프(이상 SKA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보유하고 있어 평창올림픽 금메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뉴시스

박성현, 테일러메이드와 내년 시즌도 함께간다

드라이버·우드·레스큐 등 모든클럽 테일러메이드 사용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내년에도 테일러메이드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장정을 함께한다.

테일러메이드는 15일 LPGA 투어 올해의선수상과 상금왕, 신인상 등 3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박성현과 2018시즌 클럽 연장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LPGA 투어 데뷔를 앞두고 장타력과 아이언샷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버부터 아이언까지 모두 테일러메이드 클럽으로 교체했다.

이후 장기인 장타는 물론 정교함까지 더하며 미국 무대에 빠르게 적응했고,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다.

세계랭킹 1위 탈환에 도전하는 박성현은 2018시즌에도 드라이버, 우드, 레스큐, 아이언, 웨지까지 테일러메이드

클럽을 사용하게 된다.

박성현은 "테일러메이드 신제품은 항상 나를 설레게 하고 곧 만나게 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항상 신뢰와 믿음을 주는 테일러메이드 클럽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좋은 경기, 좋은 성적을 보여주겠다"며 인사했다.

/뉴시스

오상진, MBC 연기대상 진행

방송인 오상진(37)이 MBC '연기대상'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MBC에 따르면, 오상진은 배우 김성령과 함께 오는 30일 열리는 '2017 MBC 연기대상' MC를 맡는다.

오상진은 2005년 MBC 24기 공채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MBC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2013년 프리랜서를 선언했다.

오상진이 시상식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170일 파업'에도 적극 참여했던 오상진이 MBC 정상화 흐름과 함께 시상식 MC를 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오상진은 현재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예능·드라마 등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최근 드라마 '20세기 소년소녀'에 출연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